하늘이 다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말고 그냥 웃어라

☞ 21면에서 계속

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의사와 나와 둘이 아닌데 어찌 잘못되랴. 너만이 잘못되지 않게 할 수 있어.' 한다면 잘못되지 않겠죠. 정말이에요, 그건. 그런데 그거를 아예 거기다 그냥 맡겨 버려요. 그냥 다 던져 버려요. 그러니 의사는 의사대로 고통이고 이 사람은 사람대로 고통이고 잘못되고 죽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공심으로서 공용으로서 공체로서 편리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음주계이니" 한 것도 절대로 술을 과음하지 말며 자기와 남을 위해서 분수를 지켜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시죠? 너무 술을 많이 먹으면 망주가 되고 조금 먹으면 약주가 되죠. 살도, 이 혈관도 통하고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병이 있는 데다가 또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판단을 해서 할 일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식구도 귀찮게 되죠. 또 자식의 교양에도 그거는 좀 불충분하죠. 자손들이 자랄 때에 부모들이 하는 거, 꼭 그것은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가 술 먹는 게 진저리가 나서 자식이 안 먹는다고 아주 맹세를 했는데도 술꾼이 돼 버렸어요. 그건 왜가. 아주 머리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보는데 싸우고 험한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자식들이 공부도 못 해요. 제대로 공부도 못 하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괴롭다느니 뭐니 하지 않아도 그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르려면 첫째, 부부가 잘 생각하셔야 하고 또는 자식한테 효도는 받지 못할지언정 잘 살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바로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잘 한 번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위한다는 거는 은소반에 받들고 금소반에 받들고 뭐, 돈으로 많이 드리고, 이렇게 잘해 드리고 이래서 행복하게 해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어른은 자식들이 요만큼만 말을 부드럽게 해 줘도 좋아하십니다. 또 돈이 얼마 안 들어도 요만한 걸 하나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잡숴 보세요." 한다면 그것이 별 돈이 안 들어갔어도, 자기가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지만요.

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침에 일 나갔다가 저녁에 올 때에 떡집에서 떡 하나만 사면 돼요, 여기서 케이크 사듯이. 꽃 한 송이만 사면 되고요. 물 한 그릇만 떠 놓으면 되고 향 초 그것만 켜 놓으면, 그리고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그 위패를 써서 놓고요. 위패를 쓰지 않는다면 영혼이 접할 데가 없습니다. 꽃도 그래서 해 놓는 겁니다. 어디다가 응접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접을 하고 '야, 너희들이 그래도 나 죽은 날을 생각해서 이렇게 식구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하는구나. 착하구나, 착해!' 하고선 그저 어떡하든지 잘되게 하느라고 긍긍하는 그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나는 하루 종일 일을 다니니까 못 한다, 뭐, 음식을 많이 차려 놓으니까 못 한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애들을 교육시키는 데도 그게 한몫하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부모를 갖다가 버리려고 지게에다 지고 가는데 아들이 따라오거든요.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따라가요. 그런데 왜 할머니를 그렇게 내버리고 가느냐고 하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쳐 놓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갖다 버리라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애가. 그러면서 그거를 막다가 막지를 못하니까 어머니 갖다가 버린 지게를 다시 지고 내려와요. "그 지게는 뭘 하느냐, 인제 다 썼는데." 하니까 아버지 늙으시면 져다 버려야 될 거 아니냐 했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선 지게를 달라고 그래선 자기 어머니를 도로 모시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 부모를 내가 생각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각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을 내 부모가 생각을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복을 받고 마음에 따라서 흥겹고 또 고가 없어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고는 없다는 얘깁니다. 마음은 항상 공심으로서, 공생으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 진리를 따라서 사시게 된다면 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는 끝에 한 번 더 말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모두가 살아나가는 데에 어찌 고가 없겠습니까. 괴로움도 있을 거고, 아주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스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계가 물질계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정신계가 물질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 정신계가 이 물질을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오고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영원한 근본 자체가, 자기가 없어지면 육신은 그냥 송장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송장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등 동물인 사람이 돼 가지고도 진짜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안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들더러 그러죠. 아무리 이 하늘이 다 무너지고 당신네들 식구가 다 깔려 죽는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말고 웃어라. 힘이 있으면, 진짜로 믿으면 웃어지고 믿지 못하면 아등바등해진다. 믿는다면 정말이지 진짜 탁 닿는다 이거야. 그러나 믿지 못하고 아등바등한다면 그대로 되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성이라는 이 주인공은 위대하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망하게 두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 우리 자식이 영 안되고, 여러 가지죠. 왜 자식이 시집도 못 가고 나가서 자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치가 여러 가지 각색이죠. 그런 건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하고 아무리 때리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외려 더 달아나가죠. 그러나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추운 데 나갔다 왔으면 "얘, 너 얼마나 춥니? 밥은 먹고 다니니? 난 무척 걱정했다." 그러고, 나가서 일할 때면 하다못해 냉장고 바깥에라도 그렇게 말을 써서 딱 붙여 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요량이에요. 그리고 또 관하세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나의 주인공과 네가 둘이 아닌데 너만이 모두 잘 이끌어 줄 수 있잖아. 너만이 지켜 줄 수 있어. 아들의 길이 캄캄하다면 헤쳐 줄 수 있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간절히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자식은 좋은 자식으로 잘 키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죄가 있다면 바로 과거로부터 어떻게 부모가 살아왔으며,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아온 영이 자기한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금은 금대로 금방에 있을 거고 무쇠는 무쇠대로 무쇠 방에 있을 거고 넝마는 넝마대로 넝마전에 있을 거고 이렇게요. 끼리끼리, 배는 배대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는데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잘못도 있고 자식의 잘못도 있고 그렇다면 서로가 잘못 안 되게 둥글게 만들어야죠.

이것을 우리가 해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고 지금 현재의 물질계에서 허덕이는 그것만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그건 허무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정신계로는 통신이 되지 않거든요. (중략)

근데 포기해서도 안 되죠. 마음은 체가 없다. 한 번 넘어서는 거예요. 체가 없다. 우리 차원이 높아져야 이 허공의 에너지도 꺼내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한마음으로 인해서 인연에 관한 건, 세균성 영계성 또는 인과성 업보성 유전성, 이런 거를 다 타파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불교니 할 거 없이 그저 '부처님! 주여! 알라신이여!' 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 '날 좀 살려 주시오.' 뭐가 어떻고, 자식이 어떠니 남편이 어떠니 하고 그렇게 하거든. 한생각이면 될 거를 나무 한 짐 해 오는 거나 똑같아요.

마음도 체가 없는데, 내가 공해서 없는데 그 고가 어디 붙을 데가 있습니까. 찰나찰나 화해서 고정됨이 없이 그저 자꾸 돌아가는데. 그럼 물을 마셨는데 내가 물을 마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듣게 하는 것은 동시에 오신통이 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들은 거고 본 거지, 내 생명체들이 안에서 다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같이 해 주기 때문에 본 거지 자기가 어떻게 봐요? 더불어 같이 보고 더불어 같이 들었고 더불어 같이 먹었고 더불어 같이 살고 움죽거리고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냉정히 따져 보세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랑하라.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그냥 입으로만, 이름으로만 부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라고 했죠.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아프면 같이 아프고 네 몸과 내 몸이 전체가 다 둘이 아니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항상 형성되고 진화되고 이렇게 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됐느니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남의 부모가 다 남의 부모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돌아가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랬는데 어떻게 지금 내 부모만 내 부모고 내가 기르는 자식만 내 자식이라고 하겠느냐. 전자부터 이렇게 자식이 됐었고 부모가 됐었고 한 인연이 이렇게 무섭게 이끌고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자비하게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 아주 무슨, 벌어진 장사꾼의 이름처럼 돼 버렸어요. 귀중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어떻게 헤픈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오계 받으신 거, 이것이 지금 보이는 데에서 이거를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여러분의 몸에 마크가 붙은 거와 같아요. 내가 작년 그러껜가 이때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여보내지 않는다고요. 꼭 표시가 있어야 들여보낸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당장 죽으면 그 마크를 보고서 모셔 가고 그 마크가 없으면 지옥으로 먼저 들어가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먼저 들어가듯. 경찰서에 들어가서 웬만큼 다 서류를 꾸려서 해 가지고 검사로 올라가 가지고 검사가 또 해 가지고 판사로 올라가는데 그만큼 그 위대한 마크가 있다면 그냥 무사통과거든요, 무사통과. 이게 그런 마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오계를 받고 십계를 받기가 그렇게 어려우니라. 스님네들은 십계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 이 신도들은 단 오계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오계를 받게끔 한 거죠. 오계라도 잘만 받으면 그거는 무사통과예요. 못 믿거든 요담에 한번 보세요. 요담에요, 내가 지금 살아 있어서 못 보니까 한 번 요담에 꼭 내가 보겠다 하면 그대로 보여져요. 또 때에 따라서는 가르쳐도 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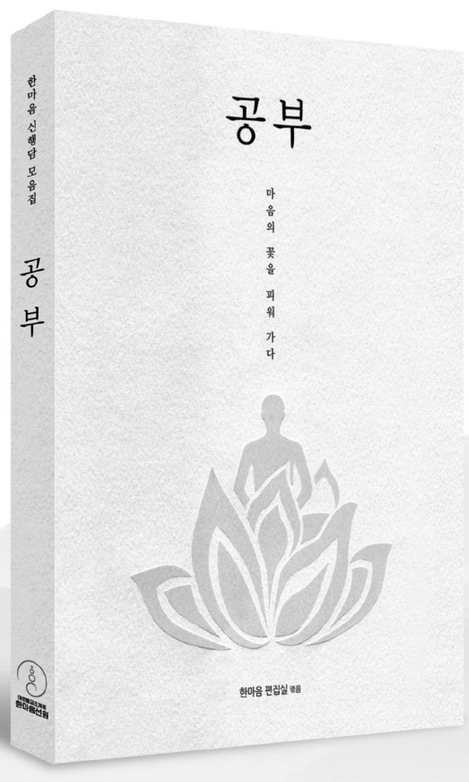
사람은 겉으로 못 보지만 그러나 이 공부한 사람은 다 보죠. 갈빗대가 몇인지도 다 봐요. 외려 가서 펼쳐 놓고 보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못 보시니까 천상 꿈이라고 붙여야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하하.

하여튼 여러분이 살면서 고통이 아무리 오더라도 '허허, 이것 또 물이 파도가 치는구나. 바람이 불지 않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이렇게 그냥 그게 시적이죠. 아주 얼마나 좋아요. '바람만 안 불게 한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선 진짜로 믿는다면 웃음이 나고, 그런 말을 해 놓고도 믿지 못한다면 바둥바둥 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온통 야단나죠. 그게, 그게 어디 진짜 사람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없다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살생계이니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까.
불투도계이니 일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불사음계이니 일체의 삿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항시 마음을 청정히 하겠습니까.
불망어계이니 일체 거짓말하지 않고 입을 조심하여 항상 진실되게 살겠습니까.
불음주계이니 절대 술을 과음하지 않으며 자기와 남을 위해 분수를 지키겠습니까.

※위 법문은 1998년 6월 21일 국외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